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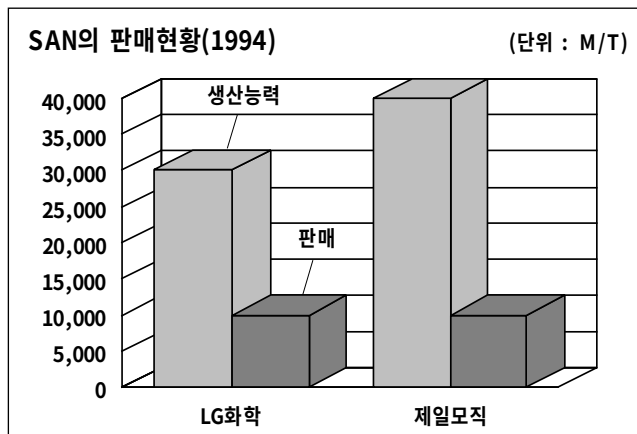
SAN

SAN은 SM에 AN을 혼합해 강도를 보강하고 내화학성을 첨가한 것으로 GPPS보다 물성이 우수해 용도가 다양하나 가격이 비싸 수요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의 국내 수요는 93년 1만4000톤이었으며 94년에는 2만톤 내외로 약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95년들어 국내 생산기업이 신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용 등의 고품질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SAN시장은 LG화학과 제일모직이 양분하고 있다. LG화학은 95년 상반기중 3만톤을 증설할 예정이며, 제일모직은 현재 4만톤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BS쪽에서 6만톤 증설에 들어갔다.



미원유화도 3만톤을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증설은 SAN이 PS와 PMMA, PC의 틈새에 끼어 현상대로는 상업성이 떨어져 고품질을 요구하는 유럽지역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라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SAN이 주로 일회용 라이터에 가장 많이 쓰이며 상용차, 축전기 및 배터리케이스 등에 널리 사용된다.

또 투명성과 강도가 요구되는 믹서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전제품의 대형화로

냉장고 등에 쓰이던 PS는 강도가 약해 비싸지만 강도가 좋은 SAN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AN은 AN의 성질에 따라 다소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급소재에는 맞지 않아 고급제품에는 이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투명성이 더 좋은 PMMA나 PC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AN의 가격은 94년초 톤당 95만원이었으나 94년말에는 120만~13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는 AN 및 SM의 가격인상이 원인이다.

< 96 화학연감 >